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언어폭력, 성폭력 및 우울, 자아존중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Verbal Abuse, Sexual Violence,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이순희*, 차은정**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Soon Hee Lee(nhlee@ut.ac.kr)*, Eun Jeong Cha(ejcha@suwon.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C도와 두 곳의 G도 등에 소재하는 종합대학의 간호대학생 177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WIN 21.0을 사용하여 t-검정, ANOVA, Pearson's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분석을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우울($r=-.529,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언어폭력은 성폭력($r=.615, p<.001$), 우울($r=.54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성폭력과 우울($r=.299,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우울과 자존감($r=-.390,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울($\beta=-.377, p<.001$), 자아존중감($\beta=.443, p<.001$), 학년($\beta=.178, p=.001$), 소속병원유무($\beta=-.140, p=.008$)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대해 5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아울러 우울을 야기할 수 있는 폭력경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실습 전 폭력예방 및 대처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언어폭력 | 성폭력 | 우울 | 자아존중감 | 진로정체감 | 간호대학생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descriptive correlation study to identify the factors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Methods: From october 15th to november 5th, 2016, data was collec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of 177 college students based on C province, two G provinces. Statistical analysis of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SPSS WIN 21.0. Results: career identity i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with self-esteem, and negatively related with depression ($r=-.529, p<.001$). Nursing students' verbal abuse i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with sexual violence ($r=.615, p<.001$), depression ($r=.540, p<.001$) and sexual violence and depression are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r=.299, p<.001$) and depression and self-esteem are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r=-.390, p<.001$). Variables that affect career identity include depression, self-esteem, grade, and whether they belong to a specific hospital. The total explanation of career identity was 52.2%.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ducational intervention is needed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students to proactively seek abuse preventive measures.

■ keyword : | Verbal Abuse | Sexual Violence | Depression | Self-esteem | Career Identity | Nursing Student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160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3년간의 작업을 통해 2002년 처음으로 ‘폭력과 건강에 대한 보고서(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y)’를 발간하여 세계 각국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2014년에는 ‘폭력예방에 관한 전 세계 실태에 관한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violence prevention)’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세계적인 움직임은 폭력이 우리사회에 중요한 문제임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국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만 8,263명이 참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로부터의 폭언 경험 비율은 55.7%, 폭행경험은 12.4%, 성희롱경험은 10.7%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폭언·폭행 유형험이 2013년과 비교하여 볼 때 증가된 추세이다. 또한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의 가해자는 환자, 보호자, 의사 순으로 높았고 성희롱의 주된 피해자는 간호사 14%, 경비안내교환 11.8% 조리배식 8% 순으로 나타났다[1][2]. 따라서 간호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험부족과 간호술기의 미숙함, 대상자와의 잦은 접촉, 잦은 실습병동의 변화로 새로운 관계 형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 환자 및 보호자들로부터의 다양한 폭력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잠재적 취약군이 될 수 있다[3]. 더불어 임상실습현장에서 가해지는 폭력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4], 향후 신규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 채 간호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낮은 직업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다[5].

진로정체감은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서, 자신의 목표, 흥미 그리고 재능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확하고 안정된 심상(picture)을 의미하며[6],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체감은 자신이 간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간호사라는 직업 선택과 관련된 진로결정에 명확한 확신을 준다[7].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은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간호수행능

력이나 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진로정체감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5].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확립에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들의 파악이 요구된다.

특히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심리적인 요인의 파악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구체적 중재 방안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으나 Kim, Chang[8]의 연구에서 우울과 진로정체감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체감 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학생들의 우울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진로정체감 혼미와 미분화, 유예 상태에서는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9], 우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자아존중감은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서 제시되고 있다[4][5].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기 평가나 자기능력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자기수용, 자기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10]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진로정체감을 확립하여 높은 임상수행능력을 보여주며 대상자에게 간호의 이론적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고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실무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10][11].

이제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정체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5][12],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13], 사회적지지[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5], 직업기초능력과 학과적응, 진로탐색능력[16], 언어폭력경험[4]등과의 상관관계를 본 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현재 임상실습현장과 사회적인 상황에서 파악하여 시행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인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경험 유형 중 발생비율이 높은 언어폭력과 경험 빈도는 낮으나 폭력 경험 후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 감정적 고갈로 이어질 수 있는 성폭력경험

을 포함하여 폭력에 대한 경험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호대학생들의 언어폭력, 성폭력 및 우울,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정체감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언어폭력, 성폭력, 우울, 자아 존중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언어폭력, 성폭력, 우울,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언어폭력, 성폭력, 우울,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와 두 곳의 G도 등에 소재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임의 표출 하였다. 표본수 산출을 위해 G* 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진로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4]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일반적 특성 11개와 4개의 독립변수를 합해 예측변수 15개를 투입하여 표본수를 계산한 결과 171명이 산출되었으며, 탈락자를 고려하여 180명을 대

상으로 하여 설문한 결과 모두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3부를 제외한 177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는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70명의 간호대학생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110명의 간호대학생에게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가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지의 두 방법으로 자료수집을 한 이유는 실습지에 나가 있는 학년의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 수집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들이 설문지를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5-20분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들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S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1611-045-03). 또한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 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서면을 통해 사전연구 동의서를 받고 시행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지는 온라인 상에서 동의를 한 경우에만 설문에 응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 진행 중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며 연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의 비밀 보장과 연구목적에 한하여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포함시켰다. 또한 연구 참여 시 유의성과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익명성 등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5. 연구도구

5.1 언어폭력

본 연구에서의 언어폭력 도구는 수술실 간호사의 언어폭력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남경동, 윤계숙, 정혜신,

박순애, 장부영, 김혜란, 엄현신, 성영희[17]가 개발하고 정효주, 정향인, 최경주, 조아영, 채유미, 최경화, 조정흠[1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승낙을 얻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1문항으로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자, 보호자, 간호사, 의사 및 타 행정직원으로부터 받은 언어폭력 경험에 따라 '전혀 없었다' 1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폭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정효주 등[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5.2 성 폭력

성폭력 도구는 박현정[19]이 간호사가 경험한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박정은[20]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성폭력(violence)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현정[19]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빈도를 5단계로 나누어 측정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경험에 따라 '전혀 없었다' 1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 5점인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정은[20] 연구의 Cronbach's $\alpha = .71$ 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5.3 우울

우울 도구는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1]의 통합적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정서, 긍정적 정서, 대인관계, 신체적 기능저하에 따라 변화되는 개념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개별 문항은 '극히 드물다' 0점에서 '대부분 그렇다' 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분포는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으로, 문항 중 긍정적 의미인 4, 8, 12, 16번 문항은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사용이 허용된 측정도구로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5.4 자아존중감

Rosenberg[22]가 개발하고 전병재[23]가 한국어로 번역한 총 10문항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분석 시 부정적인 5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도구이다. Rosenberg[22]의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으로 나타났다.

5.5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Daiger, Power[24]이 개발한 직업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 중 하위척도인 진로정체감 검사 도구를 김봉환, 김계현[25]이 번역하고 권윤희, 김정남[26]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을 위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 전체가 부정문항으로 되어 있어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권윤희, 김정남[2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언어폭력, 성폭력, 우울,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는 t-검정(t-test), 분산분석(ANOVA)으로, 대상자의 언어폭력, 성폭력, 우울,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7.9%, 여자가 92.1% 이었고, 학년은 3학년이 59.9%, 4학년 40.1% 이었다. 학교소재지는 충청도가 44.6%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4.5%, 경상도 19.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소속 병원이 있는 경우가 19.2%, 학교 소속 병원이 없는 경우가 80.8%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58.2%로 종교가 있는 학생 41.8% 보다 많았다. 폭력특성과 관련해서는 폭력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가 44.1%이었으며,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1.0% 이었다. 간호대학생 중 언어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지각한 학생은 37.9% 이었으며, 언어폭력 가해자는 환자 43.0%, 간호사 30.6%, 환자보호자 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지각한 학생은 9.1%이었으며, 성폭력 가해자는 환자가 75%로 가장 많았다[표 1].

2. 간호대학생의 언어폭력, 성폭력, 우울,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언어폭력 경험은 4점 만점에 평균 1.63±0.47점, 성폭력 경험은 1.09±0.27점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3점 만점에 평균 0.99±0.52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4점 만점에 2.97±0.53점,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평균 2.73±0.59점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경험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반말을 한다’가 2.63±0.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명령조로 말을 한다’ 2.33±0.89점, ‘다른 사람이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1.98±0.94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협박을 한다’가 1.09±0.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폭력 경험의 세부항목은 ‘외모에 대하여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 한다’가 1.16±0.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한다’ 1.16±0.43점 이었으며, ‘야한 사진이나

그림, 글을 직접 보여 준다’가 1.03±0.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추행에 해당하는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허벅지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다’는 1.07±0.43점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분류	명(%)
성별	남자	14(7.9)
	여자	163(92.1)
학년	3학년	106(59.9)
	4학년	71(40.1)
종교	있음	74(41.8)
	없음	103(58.2)
학교소재지	경기도	61(34.5)
	충청도	79(44.6)
	경상도	34(19.2)
	기타	3(1.7)
학교부속병원	있음	34(19.2)
	없음	143(80.8)
폭력교육을 받은 경험	있음	78(44.1)
	없음	99(55.9)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필요함	161(91.0)
	필요 없음	16(9.0)
언어 폭력을 당한 경험	있음	67(37.9)
	없음	110(62.1)
언어폭력을 가한 사람	간호사	37(30.6)
	환자	52(43.0)
	보호자	24(19.8)
	의사	3(2.5)
	병원직원	5(4.1)
성폭력을 당한 경험	있음	16(9.1)
	없음	161(91.0)
성폭력을 가한 사람	간호사	0
	환자	15(75.0)
	보호자	4(20.0)
	의사	1(5.0)
	병원직원	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학년(t=-2.65, p=.009), 학교 소재지(F=2.96, p=.034), 학교소속병원 유무(t=-2.32, p=.022), 폭력 관련 교육 유무(t=2.48, p=.014)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3학년 보다 4학년이, 학교소속 병원이 없는 경우와 폭력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 분석결과 학교소재지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2. 간호대학생의 언어폭력, 성폭력, 우울,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변수	평균±표준편차
언어폭력	1.63±0.47
회내며 욕을 한다.	1.42±0.58
반말을 한다.	2.63±0.89
학생이란 지위에 대해 무시하는 말을 한다.	1.97±0.88
명령조로 말을 한다	2.33±0.89
협박을 한다	1.09±0.34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을 한다.	1.14±0.42
외모에 대해 비하하는 말을 한다	1.19±0.48
성격을 비난 한다	1.12±0.39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말을 한다	1.71±0.82
교육적 배경을 비하하는 말을 한다	1.31±0.66
다른 사람이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	1.98±0.94
성폭력	1.09±0.27
우울	0.99±0.52
자아존중감	2.97±0.53
진로정체감	2.73±0.59

표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차이

변수	분류	진로정체감	
		M±SD	t or F (p) Scheffe
성별	남자	2.80±0.54	0.46(.648)
	여자	2.73±0.59	
학년	3학년	2.63±0.58	2.65(.009)
	4학년	2.87±0.56	
종교	있음	2.72±0.58	-0.30(.762)
	없음	2.74±0.59	
학교소재지	경기도	2.66±0.53	2.96(.034)
	충청도	2.87±0.61	
	경상도	2.57±0.55	
	기타	2.45±0.92	
학교소속병원	있음	2.53±0.58	-2.32(.022)
	없음	2.78±0.58	
폭력교육을 받은 경험	있음	2.85±0.57	2.48(.014)
	없음	2.64±0.59	
폭력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필요함	2.85±0.57	2.48(.014)
	필요 없음	2.64±0.59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	있음	2.63±0.54	-1.76(.080)
	없음	2.79±0.61	
성폭력을 당한 경험	있음	2.83±0.69	0.73(.464)
	없음	2.72±0.58	

4. 간호대학생의 언어폭력, 성폭력, 우울,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언어폭력경험, 성폭력경험, 우울,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진로정체감은 자아존중감($r=.62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가, 우울($r=-.529,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언어폭력은 성폭력($r=.615, p<.001$), 우울($r=.54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과 우울($r=.299, p<.001$)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우울과 자아존중감($r=-.390,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간호대학생의 폭력경험, 우울,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변수	진로정체감	언어폭력 경험	성폭력 경험	우울	자아존중감
	r(p)	r(p)	r(p)	r(p)	r(p)
진로정체감	1				
언어폭력	-.104 (.170)	1			
성폭력	-.026 (.732)	.615 (<.001)	1		
우울	-.529 (<.001)	-.540 (<.001)	.299 (<.001)	1	
자아존중감	.620 (<.001)	-.008 (.917)	-.049 (.517)	-.390 (<.001)	1

5.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학년, 학교소재지, 소속병원유무와 폭력 관련 교육유무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중 학년, 학교소재지, 소속병원 유무와 폭력관련 교육유무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를 하였으며, 3학년과 소속병원이 있는 경우를 1로 처리하였다[표 5].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해 회귀분석 실시 전 공차한계는 0.13~0.80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00~1.23로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을 구하여 종속변수의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1.868로 오차의 자기 상관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9.06, p<.001$).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울($\beta=-.377, p<.001$),

자아존중감($\beta=.443$, $p<.001$), 학년($\beta=.178$, $p=.001$), 소속 병원유무($\beta=-.140$, $p=.008$)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대해 5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5].

표 5.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진로정체감				
	B	SE	β	t	p
상수	26.124	3.373		7.744	<.001
우울	-0.300	0.046	-.377	-6.515	<.001
자아존중감	0.689	0.090	.443	7.640	<.001
학년(3rd=1, 4th=0)	-2.976	0.900	.178	-3.307	.001
부속병원 (Yes=1, No=0)	-2.913	1.085	-.140	-2.686	.008
Adj.R ² 0.522, F=49.06, p<.001					
Durbin-watson 1.868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본 연구에서 언어폭력 경험은 대상자의 37.9%였으며 가해자는 환자, 간호사, 환자의 보호자 순이었다. 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2]의 통계결과 55.7% 보다 낮은 발생률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영순, 권혜진, 노기욱, 배가령[4]의 언어폭력경험 44.5%, 정윤화, 이경희[27]의 66.8%, Jung et al.[18]의 99.5%보다 낮은 결과였다. 또한 언어폭력의 가해자로 Im, Kwon, Noh, Bae[4]와 정효주 등[18]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해외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Ferns, Meerabeau[28]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와 같이 간호대학 학생들 간의 언어폭력경험에 대한 발생률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언어폭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주관적이며, 실습환경 또한 상이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폭력의 세부항목에서는 반말과 명령조의 순서로 많은 경험을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효주 등[18], 임영순, 권혜진, 노기욱,

배가령[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반말과 높임말이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 반말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거나, 간호서비스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해 강압적인 명령조의 말투를 사용하는 예가 상당히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29]. 이에 따라 임상실습 전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받지 않고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술에 대한 교육과 자기주장훈련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이 언어폭력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가 다음 순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효주 등[18], 임영순, 권혜진, 노기욱, 배가령[4]의 연구에서도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언어폭력을 목격했던 간호대학생이 간호사가 되어 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18]. 따라서 이러한 폭력의 학습효과와 악순환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 혹은 조직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폭력 경험은 9.1%였으며 가해자는 대부분이 환자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2]의 통계결과 10.7%보다 다소 낮은 결과이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경험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 이와 유사한 Lee, Song, Kim[3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성희롱 경험은 17.9%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해 대상은 주로 환자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폭력예방 및 대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91%이며 폭력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는 44.1%에 불과 했다. 이는 임영순, 권혜진, 노기욱, 배가령[4]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언어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였으며, 성폭력경험에 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성폭력 경험은 발생률이 낮을지라도 학생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클 것이며 이로 인해 자존감의 손상을 받고 진로정체감 확립의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며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경험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시급하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우울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현주, 장인순[31]과 김용숙, 권경희[32]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우울군 분류 기준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로 나타나 간호대학생들의 우울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시사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은 중간 값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한 박정화, 정수경[11]의 결과보다는 다소 높고, 임영순, 권혜진, 노기옥, 배가령[4]의 결과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정도는 중간 값 보다 높게 나왔으며 양영옥, 이선옥[12]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들의 경우 전문직으로서의 진로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는 학년, 학교소속병원 유무, 폭력관련교육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학년보다 4학년이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정점순, 정미조, 유일영[15]의 결과와도 동일하였다. 이는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5],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임상실습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적응이 되어감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상실습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시사된다. 학교소속병원이 없는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속병원이 없는 학생의 경우 부속병원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18]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소속병원이 없는 경우 실습지도교수들이 임상실습의 질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적응을 도우며 부정적인 경험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부속병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상실습 환경의 구체적 파악 및 비교와 임상실습지도 교수의 교수법에 대한

파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폭력 관련 교육유무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영순, 권혜진, 노기옥, 배가령[4]의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폭력관련 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 임상실습 시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여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아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기 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과 진로정체감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보영, 이상희[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형성을 위해 우울정도를 낮추는 중재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영옥, 이선옥[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과 발달을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들의 언어폭력경험은 성폭력경험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결과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언어폭력과 성폭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언어폭력에 민감한 반응과 중재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어폭력과 우울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정효원 등[18]의 연구결과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언어폭력경험 후 정서반응으로 우울함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과 우울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최은숙, 정혜선, 김수현, 박현주[3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언어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함으로써 우울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순희, 차은정[34]과 황윤영[35]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우울정도를 낮추고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진로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울, 자아존중감, 학년, 소속병원유무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대

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대해 5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정체감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 임영순, 권혜진, 노기옥, 배가령[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해 임상실습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히 간호학과가 최근 많이 신설되어 임상실습지 환경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임상실습지도교수의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학생지도에 대한 간호대학교수들의 특별한 관심과 전략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들에 대한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사정과 이에 따른 학생별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의 한계점으로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진로정체감이 연구 설계 시의 예상과는 달리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임영순, 권혜진, 노기옥, 배가령[4]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언어폭력과 진로정체감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국내 다른 연구와 비교 시 대상자들의 폭력경험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자수를 늘려 반복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폭력 경험에 대해 다른 도구를 사용한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전문직 간호사로서 임상실무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로정체감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대상자들에 대해 학년별 접근이 더욱 효과적 일 것으로 보이며, 학교차원의 임상실습지도에 대한 관심과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학생지도 시 간호대학생들의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요인의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각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해 임상 실습 전 의사소통 기술의 학습과 자기주장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연구의 대상자는 C도와 두 곳의 G도 등에 소재한 종합대학에 다니는 간호대학생 177명을 편의표집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루어졌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우울($r=-.529, p<.001$)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울($\beta=-.377, p<.001$), 자아존중감($\beta=.443, p<.001$), 학년($\beta=.178, p=.001$), 소속병원유무($\beta=-.140, p=.008$)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는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대해 52.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아울러 폭력경험을 줄이는 방안으로 실습 전 폭력예방 및 대처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안전한 실습환경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특수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노력과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경험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몇 가지 제한점은 대상자 선정 시 특정 지역에 다니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편의추출한 결과로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http://bogun.nodong.org/xe/index.php?document_srl=263954&mid=khmwu_5_4

- [2] http://bogun.nodong.org/xe/index.php?document_srl=309826&mid=khmwu_5_4
- [3] 김선희, 조현지, 동주현, 안주민, 윤버리, 이가영, 이진영, 이효민, 장혜인,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시 겪는 언어폭력, 언어폭력반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제10권, pp.249-266, 2011.
- [4] 임영순, 권혜진, 노기옥, 배가령,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경험한 언어폭력과 진로정체감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8권, 제4호, pp.2315-2328, 2016.
- [5] 조희, 이규영,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63-173, 2006.
- [6] J. L. Holland, D. C. Gottfredson, and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No.6, pp.1191-1200, 1980.
- [7] 문인오, 이경완,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 탐색효능감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83-91, 2010.
- [8] 김보영, 장은비,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과 성취가치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7호, pp.31-52, 2015.
- [9] 오보영, 이상희, “한국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자아존중감, 우울 및 대학 적응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pp.47-67, 2013.
- [10] 정명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실습수행도 및 실습만족도 간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1호, pp.60-68, 2008.
- [11] 박정화, 정수경,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7698-7707, 2015.
- [12] 양영옥, 이선옥,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4권, 제2호, pp.979-990, 2012.
- [13] 하주영,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진로정체감,” *간호과학*, 제24권, 제2호, pp.23-30, 2012.
- [14] 김지환, 김자영, 김승섭, “국내병원 레지던트들의 직장 내 폭력경험과 우울증상에 관한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제39권, pp.75-95, 2015.
- [15] 정점순, 정미조, 유일영,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1호, pp.27-36, 2014.
- [16] 윤영미, 성경숙, 김은주, “간호대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이 학과적응, 진로정체감과 진로탐색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간호학회지*, 제22권, 제1호, pp.98-108, 2015.
- [17] 남경동, 윤계숙, 정혜선, 박순애, 장부영, 김혜란, 엄현신, 성영희, “수술실 간호사가 경험하는 언어폭력 측정도구 개발,” *간호행정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59-172, 2005.
- [18] 정효주, 정향민, 최경주, 조아영, 채유미, 최경화, 조정흙,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언어폭력과 정서적 반응 및 대처행동,” *의료커뮤니케이션*, 제8권, 제2호 pp.99-108, 2013.
- [19] 박현정, *중환자실 간호사의 폭력경험과 대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0] 박정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중 폭력경험과 반응 및 대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21] 전점구, 최상진, 양병창,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6권, 제1호, pp.59-76, 2001.
- [22]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3] 진병재, “자아존중감 : 타당성 검증,” *연세논총*, 제11호, pp.107-124, 1974.
- [24] J. L. Holland, D. C. Daiger, and P. G. Power,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1980.
- [25] 김봉환, 김계현,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

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9권, 제1호, pp.311-333, 1997.

[26] 권윤희, 김정남, “MBTI를 활용한 성장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3권, 제2호, pp.216-229, 2002.

[27] 정은화, 이경희 “간호대학생의 폭력경험, 대처양식 및 회복탄력성이 정서반응과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3호, pp.391-399, 2016.

[28] T. Ferns and L. Meerabeau, “Verbal abuse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1, No.4, pp.436-444, 2008.

[29] 조윤희, 홍유리, 이아미, 김미경, 이혜진, 한애경, 김은정, “병원 근무 중 간호사가 경험한 언어폭력과 정서적 반응 및 대처방안,”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제20권, 제3호, pp.270-278, 2011.

[30] S. K. Lee, J. E. Song, and S. Kim,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of korean nursing students,” Asian Nursing Research, Vol.5, No.3, pp.170-176, 2011.

[31] 박현주, 장인순, “일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우울, 대처방법과 임상실습만족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4-23, 2010.

[32] 김용숙, 권경희, “간호대학생의 우울 수준별 스트레스, 수면, 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 경북간호과학지, 제20권, 제1호, pp.13-23, 2016.

[33] 최은숙, 정혜선, 김수현, 박현주, “한국 근로자의 업무관련 불안감 및 우울감 경험에 대한 직장폭력의 영향,” 대한간호학회지, 제40권, 제5호, pp.650-661, 2010.

[34] 이순희, 차은정, “대학생의 우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가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미치는 영향-보건 계열 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6권, 제5호, pp.2781-2793, 2014.

[35] 황윤영, “일 지역 여성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자아통합감 간의 관계,” 한국자료분석학회, 제11권, 제4호, pp.1843-1854, 2009.

저 자 소 개

이 순 희(Soon Hee Lee)

정회원



▪ 현재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 비만, 노인, 간호교육, 질적연구

차 은 정(Eun Jeong Cha)

정회원



▪ 현재 :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건강증진, 간호관리, 간호교육